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pp.63 8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제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고진호

(동국대학교)

《요약》

이 글은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시행될 우리나라 중등학교 종교교육과정의 개편현황을 종교교육의 성격, 종교교육의 내용, 종교교육의 교수 학습과 평가준거 및 방법의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이러한 탐색에 기초하여 2002년부터 일선학교에서 시행될 ‘종교(불교)’ 교육의 방향을 위의 교육과정 편제와 구조적 틀 속에서 논의하였다.

종교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을 계기로 국가단위의 완성된 편제를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은 ‘종교(불교)’ 교과가 교육과정상의 공적기준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하여 종교교육의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7차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종교교육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구조적 논의의 장에서 그 바람직한 방향을 체계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에서 실시되어온 종교교육은 그 동안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간에 절충점과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해왔다. 때로는 종교교육에 대한 이 두가지 성격규정이 상반되거나 모순된 것으로 인식되어, 긴장과 불일치를 야기하고, 일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되어온 측면도 있었다. 이번 7차 종교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들이 교육과정의 구조와 틀 속에서 논의됨으로 보완 해소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 논의에 기초해서 이 글에서는 중등학교 종교(불교)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핵심 주제어: 신앙적 종교교육, 종교학적 종교교육, 종교적 다원성, 범례수업

I. 서론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의 ‘종교(불교)’¹⁾ 교육은 2002년부터 시행될 7차 교육과정²⁾에 의해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번 7차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종교 교육 과정이 국가수준에서 보다 완성된 편성체제를 갖추고 채택, 고시됨으로서 중등학교에서의 ‘종교(불교)’ 교과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과 구체적인 공적 준거를 마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불교)’ 교과는 4차 교육과정(1981년) 당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었으나, ‘종교(불교)’ 교과는 종립 학교의 재량에 의해서 실시되는 특별교과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6차 교육과정 개정(1996년)당시에 최초로 ‘종교’교과에 관한 교육과정이 국가수준에서 고시되기는 했으나, 교육과정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단지 형식적 문서로서만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례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과정의 편제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일선 종립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과정에서 교육과정의 편성 취지가 완전히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예를 들자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선택 중심 체제를 강조하고 있어, “종교(불교)”교과의 경우도 편성체제상으로는 여타의 교양 과목과 복수로 개설되어 선택²⁾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앙적 목적을 반영해야 하는 종립 학교의 현실적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취지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된 교과선택의 문제들이 비록 양해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단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종교(불교)’교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종립 학교 종교교육에 있어서 ‘신앙적 종교교육’과 ‘종교학적 종교교육’의 차원을 절충하고 타협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종교교육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이중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 국가 단위의 종교교육과정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그동

1) 이 글에서 ‘종교’로 표기한 경우는 교육과정 문성상에 나타나 있는 교과목의 표시를 의미하며, ‘종교(불교)’로 표기한 경우는 불교계 종립학교의 교과목명 혹은 이들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명을 의미한다.

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I): 제7차 교육과정』, 1998, 7쪽.

안 일선 종립 학교에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6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종립 학교의 종교교육은 교파적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신앙교육이 중심이 되어 왔고 그러한 교육과정 운영이 별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³⁾ 이번 7차 교육과정에서도 종교교육의 현실적 특수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종교별 교육과정 운영 대해서는 일정 수준 종립 학교에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국가단위의 종교 교육과정은 일선 종립 학교 종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참조체제(frame of reference)’일 뿐만 아니라 공약(公約)된 룰(rules)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따라서 7차 종교 교육과정과 같은 국가 단위 교육과정의 편성은 향후 우리나라 종교교육의 방향이 종립 학교의 재량이나 특수한 여건에 대한 배려의 차원보다는 공공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7차 종교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성체제는 종교 교과목에 대한 성격규정, 목표진술, 내용영역, 교수학습 및 평가에 관한 지침들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⁴⁾ 7차 교육과정은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의 기본영역별 지침을 명세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종교(불교)’와 같이 종립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종교별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단지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불교)’교육을 국가단위에서 설정된 종교 교육과정의 구조와 틀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체제에서 살펴보고 그 안에서 ‘종교(불교)’ 교과목의 교과운영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 글에서는 종립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종교(불교)’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사용된 ‘종교(불교)’로 채택된 교과서명에 나타나 있다. 5차 당시까지만 해도 종파별로 다양한 교과서를 사용했고, 불교 종립학교의 경우는 ‘불교교본’이라는 교과서명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종교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최초의 종교교육과정이 만들어진 6차 교육과정 전후로 짐작된다.

4)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 2001, 128-148쪽.

II. 종교(불교)교육의 성격

1. 교양과목으로서의 성격

이번 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목은 고등학교 과정(11학년) 일반 선택과목 ‘교양과목군’에 4단위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⁵⁾. 종교교과에 대한 7차 교육과정의 편성취지는 향후 중등 ‘종교(불교)’의 기본 성격과 방향을 시사한다. 중등학교의 ‘종교(불교)’ 교육은 교육과정의 편제와 운영상 교양교육 교과목으로서의 교과의 정체성과 위상이 ‘정당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7차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교과를 비롯한 7개의 교양과목의 개설취지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교양교육은 그 성격상 어느 특정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추구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청소년기라 볼 수 있다. ... 청소년 시기는 인생의 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교양교육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⁶⁾.

위 인용글은 중등학교에서 ‘종교’ 교과 등과 같은 교양과목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언급해놓고 있는 원론적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글만을 가지고는 7차 교양교육과정의 의도와 교양교과목으로서의 종교교과의 편성의도를 명쾌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여타의 교과와는 구별되는 ‘종교(불교)’의 교과의 성격을 ‘종교(불교)’교양교육을 통해 상정(想定)할 수 있는 ‘인간상(人間象)’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종교(불교)교과’ 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종교(불교)’교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종교적 교양인으로서 학생을 성장시키려는

5) 제 7차 교육과정은 일종의 과목군 편성체제로 편제를 갖추고 있다. 그 중 ‘종교’교과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보통교과에서 이수하게 되어있는 교양과목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과목군에는 ‘종교’를 비롯하여 ‘논리학’, ‘심리학’, ‘철학’, ‘교육학’, ‘생활경제’,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과 같은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교육부(1998), 전거서, 7 참조.

6) 교육부, 앞의 책, 2001, 6쪽, 참조.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종교(불교)적 교양을 갖춘 인간’이란 어떠한 인간을 의미하는가?와 같은 질문들로 환원 기술될 수 있다. ‘종교(불교)’ 교육내용이 ‘종교적 일반지식+ 불교적 지식’의 형식으로 편성되어있고 종교교육이 교양교육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교양을 갖춘 인간에 대한 논의들은 매우 복잡한 양태를 띠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종교(불교)’교과는 여타의 교과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한 형식(forms of knowledge)’이며, 학교교육에서 지식교육의 형태를 기본 골간으로 해서 교수학습될 수 밖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⁷⁾

종교적으로 교양을 갖춘 인간이란 먼저 ‘종교(불교)’적 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이해에 바탕해서 세계를 관조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안목과 이해를 통해서 종교적 신념과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교 종교교육에 있어서 종교적 신념과 가치체계의 형성에 앞서서 학생의 종교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교(불교)’교육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신념’과 ‘헌신’을 강조하는 종교교육기관의 종파교육과 ‘종교(불교)’교육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학교교육에서도 종교적 신념과 헌신은 종교교육을 통해서 기대되어지는 교육적 결과 혹은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종교적 신념이나 헌신과 같은 종교적 가치요인들은 종교적 지식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만 한다.

7)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고 있는 교육과정 학자들의 주장은 종교교육을 ‘교과(지식)’라’고 하는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허스트는 종교교과는 다른 교과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지식의 형식’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양교육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페닉스는 종교교과를 궁극적인 의미를 초월자에게로 부터 구하는 ‘총괄적 의미(Synoptics)’의 영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 (참고: P.H. Hirst, *Liberal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 in R. Archambault(ed.), *Philosophical Analysis and Education*, London:R.K.P., 1965; P. Phenix, *Realms of Meaning*, N.Y.:McGraw, 1964.)

2. 종교과목으로서의 성격

이번 7차 종교 교육과정에서는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갖춘 건전한 교양인을 길러주는 ‘종교학적 종교교육’으로의 전환모색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7차 종교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교육의 기본성격을 종교에 관한 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과 탐구를 통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확립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과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⁸⁾

학교의 종교교육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믿도록 하거나 정향 시키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등학교 ‘종교(불교)’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일은 종교적 신념이나 헌신을 강조하기 이전에 종교적 지식이나 주장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학생이 검토케 할 수 있는 조건과 계기를 마련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종교적 지식은 특히 ‘신념조건’이 강조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교육과정에서 가르쳐져야 할 모든 종교적 지식이 신념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종교적 이해를 통하여 참다운 종교적 신념이나 헌신이 나타날 수도 있다.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종교적 믿음과 헌신만을 강조한다면, 때로는 그러한 시도가 비교육적 혹은 반교육적인 것이 될 수 있음도 경계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중등학교에서 ‘종교(불교)’교육은 특정 신앙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적 종교교육’과 더불어 특히 ‘종교학적 종교교육’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불교’와 같은 특정 종교를 신앙적 차원에서 가르치더라도 ‘종교(불교)’라고 하는 중등 교과명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종교학적 차원에서 불교를 포괄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생이 종교적 교양인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적 조치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8)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 2001, 128쪽.

9) J.Sealy, *Religious Edu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강돈구의 옮김, 『종교교육이론』, 서울:서광사, 1992, 29쪽.

III. 종교(불교)교육의 목적

1. 종교 교양교육으로서의 일반 목적(표)

7차 종교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과목의 성격을 교양으로서의 성격과 종교학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편성체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종립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종교(불교)’교육도 종교 교양교육으로서의 일반목적을 반영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종교 교양교육으로서의 ‘일반목적(aims)’을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의 습득과 건전한 종교관의 정립’,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의 확충’,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의 확립’으로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일반목적들이 학교 종교교육의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적 기대결과(educational outcomes)’를 반영하는 보다 세부적인 ‘목표(goals)’로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¹⁰⁾ 이러한 점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교육과정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궁극적인 가치와의 만남을 통해 종교적 인격을 기르며, 종교적 가르침, 종교 의례, 종교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 세계 여러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비교함으로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인간이 유한하고 불안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생활터전이면서, 아직 신비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 우주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 한국사회에서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외래종교가 수용되고 뿌리내려온 과정과 무속신앙과 같은 고유종교나 자생적 신종교인 민족 종교들을 이해함으로서 건전한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종교 공동체의 이념과 기준을 이해하고 공동체가 분담하고 있는 역할을 배운다.¹¹⁾

10) G.J.Posner&A. Rudnitsky, *Course Design:A Guide to Curriculum to Development for Teachers*, 김인식의 역, 『교사와 교육과정 설계』, 진주: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124쪽.

11) 교육부, 앞의 책, 2001, 129- 130쪽, 참조.

이러한 목적들이 ‘종교(불교)’교육의 수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위별 ‘수업목표(objectives)’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교 교양교육의 일반 목적(표)은 수업목표들의 누가적인 효과 혹은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업목표들간의 상호연관성과 함께 종교교양교육의 일반 목표의 범주내에서 이러한 수업목표들이 논리적 체계와 일관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종교(불교)’ 교과목의 특수 목적(표)

종교교과는 종교교양교육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불교’와 같은 특정 종교를 교수해야하는 특수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현재의 종립학교의 여건과 현실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특수목적(표)들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특정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위해 해당 종교의 경전 과 교리 및 역사를 배우고 익혀 신앙심을 키우도록 한다.¹²⁾

이러한 종교교육의 특수목적과 일반목적과는 일정수준 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종교교양교육으로서의 일반 목적은 종교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고 종교적인 지적균형과 세계를 관조하는 안목을 갖춘 교양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불교’와 같은 특정 종교를 교육하기 위해서 설정된 종교교육의 특수목적은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의도로 설정된 목적들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목적들이 학교의 종교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모순, 대립되는 것만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두개의 목적들은 ‘보편’과 ‘특수’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의 특수목적들은 종교교육의 일반목적들로서 종교교양교육의 목적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상보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2) 같은 책.

IV. 종교(불교)교육의 내용

1. 종교교과의 내용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종교교과의 내용구성체계는 4개의 기본 편성 영역(대단원)-제1영역: ‘종교일반의 이해’, 제2영역: ‘다양한 종교의 양태에 대한 이해’, 제3영역: ‘종교와 관련 인간, 자연, 공동체에 대한 이해’, 제4영역: ‘특정 종교에 대한 이해’와 8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래<표·1> 종교교과의 내용조직과 단원 구성 참조).

<표·1> 종교교과의 내용조직과 단원구성(고등학교)

내용조직	단원	핵심주제	선정취지	비고
<제1영역> 종교일반 이해	제1단원 인간과 종교	○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해결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종교의 의의와 역할	학생들의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종교에 대한 개념 이해	
	제2단원 종교적 경험의 이해	○여러 가지 인생문제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경전과 종교규범 ○종교의례와 종교적 실천	종교문화의 토대가 되는 종교경험의 내용과 특성에 대한 이해	
<제2영역> 다양한 종교의 양태에 대한 이해	제3단원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종교사상과 배경, ○참된 것과 깨달음 ○종교의 특성 이해	종교들의 차이와 내용에 대한 이해	신설
	제4단원 세계 종교와 문화	○유교와 도교 ○불교 ○크리스티교 ○이슬람교와 기타종교 배경	세계 종교들의 특성에 대한 파악	
<제3영역> 종교와 관련 인간, 자연,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이해	제5단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다양한 인간관 ○종교적 인간관 ○종교적 자연관 ○과학과 종교	종교가 삶의 인간과 자연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파악	신설
	제6단원 한국종교와 문화	○한국 불교와 문화 ○한국 유교 및 도교와 문화 ○한국 크리스티교와 문화 ○한국 무속신앙과 민족종교	한국종교와 문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제7단원 종교공동체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종교의 사회적 기능 ○종교간의 화해와 공존 ○종교적 인격형성	인간의 삶의 토대가 되는 공동체를 종교가 구성하는데 기여한 바에 대한 이해	

내용조직	단원	핵심주제	선정취지	비고
<제4영역> 특정종교에 대한 내용	제8단원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	○경전의 고대역사 ○종교적 생활 ○한국종교와 문화창조 ○나의 종교생활 설계	해당 종교의 역사와 경전, 교리, 일상생활과 기여점에 대한 탐구	

<출처>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육부 고시 1997-15호, 2001, 130-132를 도표화함.

위 <표·1>에 제시된 8개의 중단원 중 제 3단원 ‘서로 다른 종교의 전통’과 제 5단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단원이 7차 종교 교육과정에서 추가, 신설됨으로서 ‘내용범위(scope)’가 전반적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3단원 ‘서로 다른 종교의 전통’은 다양한 종교의 신앙 대상이나 교리와 실천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타종교를 그 자체로 인정하면서 종교자체의 대화와 공존이 바람직함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되었다. 이 점에서 제3단원은 다양한 종교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주로 신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 5단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는 종교에 대한 포괄적 이해, 생태적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종교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단원으로 이 단원은 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과 자연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신이나 우주적 원리와 같은 궁극적 실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정된 단원이다. 특히 이 단위에서는 종교와 과학간의 갈등과 조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학생들에게 정립해주기 위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7차 종교 교육과정은 내용영역 편성 취지상 종교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와 실용주의적 종교관이 적극 반영되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과 내용범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내용체계상의 ‘위계화’ 보다는 ‘수평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단위간의 ‘계열성(sequence)’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예외적으로 제 3단원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의 내용은 제 4단원 ‘세계종교와 문화’의 내용의 선행학습내용으로 신설된 단위이며, 제8단원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을 1-7단원의 선행학습을 통해서 교육할 것을 권장함으로서¹³⁾, 종교학적 일반지식에 근거하여 개별종교의 특성을

13)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2001, 131쪽.

이해시키고자 하는 7차 교육과정의 편성의도를 반영하려고 하고있다.

2. ‘종교(불교)’교과(서)의 내용

제 7차 종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의 일반적 내용범주와 단위설정 취지정도만을 개략적으로 밝혀 놓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불교계 종립학교 이외에도 종교교과를 가르치는 타종단별 종립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항이다.

따라서 7차 종교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구성체계만을 가지고 불교계 종립학교에서 ‘종교(불교)’교육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7차 교육과정과 같은 국가단위의 종교교육과정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에 기초하여 종교별 교육과정을 후속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종파별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7차 ‘종교(불교)’교과서 내용(시안)¹⁴⁾을 검토함으로써 일선 종립학교 수준에서 7차 종교 교육과정의 편성 의도와 취지를 교육 내용적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탐색을 시도해볼 수 있다(아래 <표·2> 종교(불교)교과서 내용에 대한 6차,7차 비교(고등학교) 참조).

제7차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편찬될 ‘종교(불교)’교과서 개편 내용(시안)을 보면 교육과정 편제상의 제5영역(대단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를 교과(서) 내용상으로는 제4단원 ‘인간과 자연과 종교’라는 독립 단원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내용영역상 제3영역(대단원) ‘서로 다른 종교의 전통’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원이 교과서의 내용상의 독립 단원으로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7차 종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영역을 교과(서)내용으로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융통성 있는 지도를 통해서 관련 단원에서 제 3영역(대단원) ‘서로 다른 종교의 전통’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다룸으로서 편

14) 불교교육 연합회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해 2001년부터 사용될 ‘종교(불교)’교과서 시안을 이미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고, 개편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중학교 과정의 경우는 학년별로 별도(3권)이었던 ‘종교(불교)’교과서가 한권으로 통합되고, 고등학교의 경우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종교적 인간관, 종교적 자연관, 과학과 종교관이 신설되었다고 밝히고 있다(<http://www.buddhpia.com>).

성의도를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편성상 예외적으로 제3단원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과 제4단원 ‘세계 종교와 문화’에 대한 교육내용상의 연관 구조를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소한 제3단원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은 어떤 형태로든지 일선 학교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내용범주로 판단된다.

제4영역 ‘특정종교에 대한 내용’(제 8단원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은 개별종교로서 ‘불교’의 교육을 하는 부분이다. 교과서의 내용 목차상으로 볼 때는 이 단원의 내용구조는 6차와 7차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볼 때 제4영역(대단원) ‘특정 종교에 대한 내용’은 비록 제8단원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이라고 하는 1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1개의 중단원의 하위단원으로 8개의 소단원이 편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교과내용 비중이 가장 큰 단원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구조는 우리나라에서의 종교별 종교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종교교육의 여건과 현실을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선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불교’와 같은 종교별 종교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내용을 다룰 경우, 다른 단원들과의 내용적 연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교육과정 운영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 종교(불교)교과서 내용에 대한 6차,7차 비교(고등학교)

7차교육과정의 내용조직	7차 교육과정의 단원구성	교과서 내용목차		비고
		6차 교과서	7차 교과서	
<제1영역> 종교일반 이해	제1단원 인간과 종교	제 1단원 인간과 종교	제 1단원 인간의 삶과 종교	
	제2단원 종교적 경험의 이해	제 4단원 종교적 경험의 이해	제 2단원 세계의 종교	
<제2영역> 다양한 종교의 양태에 대한 이해	제3단원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신설
	제4단원 세계 종교와 문화	제 2단원 세계의 종교, 그 전통과 사상	제3단원 세계 종교의 사상과 특성	

7차교육과정 의 내용조직	7차 교육과정의 단원구성	교과서 내용목차		비고
		6차 교과서	7차 교과서	
<제3영역> 종교와 관련 인간, 자연,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이해	제5단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제4단원 인간과 자연과 그리고 종교	신설
	제6단원 한국종교와 문화	제 3단원 한국문화와 종교	제5단원 우리나라의 종교와 문화	
	제7단원 종교공동체	제4단원 종교적 경험의 이해 제4소단원 종교적 공동생활	제6단원 현대사회와 종교의 역 할 제1소단원 종교적 공동생활	
<제4영역> 특정종교에 대한 내용	제8단원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	제6단원 불교의 출발 제7단원 깨달음의 세계 제8단원 대승의 진리 제9단원 불교의 윤리 제10단원 한국의 불교 제11단원 불교와 예술 제12단원 불교의 신행 제13단원 불교와 새로 운 문화의 창조	제7단원 불교의 출발 제8단원 깨달음의 세계 제9단원 대승의 진리 제10단원 불교의 윤리 제11단원 한국의 불교 제12단원 불교와 예술 제13단원 불교의 신행 제14단원 불교와 새로 운 문화의 창조	내용 목차 동일

<출처> 6차교과서 내용목차는 불교교육연합회, 고등학교 종교(불교),2001을 참조했으며,
7차 교과서 내용목차는 비공식 자료(교과서 목차시안)에 기초하여 제시하였음.

V. 종교(불교) 교수·학습과 평가

1. 교수·학습의 방향과 방법론

중등 ‘종교(불교)’교수·학습과 평가는 7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종교과목의 편성체제의 논리구조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과 평가는 종교교육의 성격이나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일관된 체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종교교육의 교수·학습과 평가는 다음과 두 가지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 종교에 대한 기본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하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사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교수·학습
- 특정 교리와 경전, 역사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해당종교에 대한 신앙심을 돈독히 하기 위한 방향에서의 교수·학습¹⁵⁾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차원의 교수·학습과 평가의 방향은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향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교(불교)’교육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목적이 ‘보편’과 ‘특수’를 반영하면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종교(불교)’교수학습과 평가에서도 이러한 목적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제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불교)’의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면 특수에서 보편을 지향하는 체제로서 하나의 종교적 범례로서 불교를 설정하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종교학적 지식의 습득과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범례수업(範例授業: Exemplar instruction)’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불교)’교육에 있어서 교수·학습상의 원리로서 범례수업을 도입함으로써 특정종교를, 전체적인 종교교육 내용구조와 ‘연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불교)’교육에서 실시되어지는 범례수업¹⁶⁾에서는 ‘불교’를 ‘종교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pars pro toto*)’로 보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타의 종교 그리고 종교일반 현상에 대한 이해로 지식의 지평을 확장해나갈 수 있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보편에서 특수를 지향하는 교수·학습 체제로서 종교학적 교수 학습모형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학적 교수·학습체제는 종교일반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서 종교에 관한 핵심적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이러한 선행 학습 결과에 기초해서 특정종교로서 ‘불교’를 심화 학습할 수 있는

15) 교육부, 앞의 책, 2001, 147-148쪽, 참조.

16) J.Dervolav, *Das Exemplarische*, 정인석 역, 『교과교육론』, 서울:교육출판사, 1987, 203쪽.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불교) 교수학습을 위한 계획단계에서 교사는 발문과 수시 평가 내용 및 과제물 부과 계획을 수립하여, 수업과 평가를 연계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실제 수업에서 토론식 수업, 발표수업, 시청각 수업 등을 강조하여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자발성을 이끌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평가의 기본방향과 방법론

종교과목에서의 평가는 앞에서 논의된 목표, 영역별 내용, 교수· 학습의 체제와 및 방법론과 일관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교사는 다양한 학습상황에서 학생의 수행과정을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수행과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토론과 의견발표 내용 및 태도를 평가하도록 해야한다.
- 종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희생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실천해야 할 것을 평가한다.
- 관찰과 면접, 논술과 과제물 검사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 평가는 지필 검사 이외에도 자료수집과 분석, 논증에 대한 비판과 토론 및 발표능력 등을 고루 평가하도록 배려한다.
- 정의적인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¹⁷⁾

교육과정운영의 체제적인 측면에서 ‘평가(evaluation)’는 흔히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평가는 교육과정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방향을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종교(불교)’교과의 평가는 중등학교에서의 ‘종교(불교)’교과의 성격을 규정하는 실질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의 종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수행평가(遂行評價: performance evaluation)’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행평가는 학생이 최종적

17) 교육부, 앞의 책, 2001, 148쪽, 참조.

으로 학습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이 어떻게 학습했느냐를 평가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¹⁸⁾를 의미한다.

그러나 '종교(불교)'교과에서의 수행평가가 종교교과에서 습득된 종교적 지식과 신념이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고 확인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종교교과에서의 수행평가는 학생이 '종교(불교)'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나타난 학생이 학습성취도와 아울러 이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발휘된 학생의 자율적인 노력이나 성장정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평가로서 의미가 있다.

VI. 논의 및 결론

이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7차 교육과정 편성체제에 따른 중등학교에서의 '종교(불교)'교육방향 탐색들을 종합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교(불교)'교육의 성격을 탐색하는 일은, '종교(불교)'교과의 교과로서의 가치를 '정당화(justification)', 교과로서의 '합리적 근거(rationale)'를 제시해야만 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종교(불교)'교과도 여타의 교과와 마찬가지로 교과(지식체계)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적 성취가 무엇이며, 그러한 성취가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적 교양을 갖춘 인간'의 의미를 숙고(熟考)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의 가치는 해당 교과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인간상 의도하고 있는가?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교양을 갖춘 인간은 종교에 관한 교과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세계를 관조해나갈 수 있는 지적능력과 안목을 갖춘 인간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은 다 종교 사회에서 '종교적 다원성(religious plurality)'을 인정하고, 종교에 대한 관용과 이해의 정신을 발휘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18) 남명호, 김성숙, 지은림, 『수행평가: 이해와 적용』, 서울:문음사, 2000, 26쪽.

이번 7차 종교 교육과정 ‘종교적 교양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종교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종교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종교교육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종교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종교적 지식에 대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신앙을 형성-물론 이것도 학생 개인의 선택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종교교육에 대한 성격규정이 학교에서 ‘신앙적 종교교육’이 불필요하거나 무소용 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실시되는 종교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의 매개를 통하여 형성될 수 있는 종교교육의 측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종교적 경험과 실천도 종교교육의 주요한 교육적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단지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과 방법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교과(지식)’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교교육의 중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교육의 방법론적 관건은 교과로서의 교육(교양과 종교학)/신앙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방향들이 내포하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질적으로 결합하고 일관성 있는 체계로 발전토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7차 종교교육과정의 편성체제에 의거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수·학습이론과 평가의 차원에서 보편(종교적 일반지식)과 특수(개별신앙)라고 하는 방법론적 접근을 통하여 구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보편과 특수적 접근론은 종교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교육/신앙이라고 하는 일정수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목표를 적절히 타협된 상태로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일반지식과 개별신앙이라고 하는 양자의 관계가 교육목표와 내용 그리고 교수·학습과 평가와 같은 교육과정 편성상의 여러 상호 체제들에 있어서 내적 연관을 갖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종교(불교)’교과는 교육과정의 편제

19) 이런 점에서 종교교육을 특정종교의 입장을 반영하는 ‘종교의 교육’, 인간교육을 위해서 실시하는 ‘종교적 교육’, 종교에 관한 본질과 삶의 방식을 교육하는 ‘종교에 관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의 종교교육이 학교의 종교교육에서도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박선영, 「종교와 인격교육」,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편, 서울: 아름다운세상, 1998, 32-38쪽 참고).

상에서 교과목의 정체성과 위상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종교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추구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 불교교육연합회, 『종교(불교) 중학교 교과용도서(1):6차』 .
 불교교육연합회, 『종교(불교) 중학교 교과용도서(2):6차』 .
 불교교육연합회, 『종교(불교) 중학교 교과용도서(3):6차』 .
 불교교육연합회, 『종교(불교) 고등학교 교과용도서:6차』 .
 교육부, 『고등학교 6차 교육과정 해설(I)(II)』 , 1992.
 교육부,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I)』 , 1997.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2001.
 전국교법사단, 『고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시안):6차』 .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 내용목차:비공식 문건.
<http://www.buddaphia.com>
- 고진호의 1인, 「불교교양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학생 의견조사」, 《학생생활연구》 15, 2001.
- 남명호, 김성숙, 지은림, 『수행평가: 이해와 적용』, 서울:문음사, 2000.
- 박선영, “종교와 인격교육”한국종교교육학회편, 『한국의 종교교육과 인격교육』, 1998.
- 오인택, 「독일의 종교교육과정 이론의 최근 동향」, 한국교육철학연구회, 《교육철학》 8, 1990.
- 정인석, 『교과교육론』, 서울: 교육출판사, 1987.
- 진영은 조인진공저, 『교과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1.
- Hassen,J. *System der Religionsphilosophie*, 허재운 역(1994), 『종교철학의 이해』, 서울:서광사.
- Hirst, P.H., "Liberal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 in R.D. Archambault (ed), *Philosophical Analysis and Education* ,London :R.K.P., 1965
- Phenix, P.H.(1964), *Realms of Meaning*, N,Y,:McGraw.
- Posner, G.J. & A.N. Rudnitsky,(1980), *Course Design: A guide to Curriculum Development for Teachers*, 김인식 외 역, 『교사와 교육과정설계』, 진주: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Sealy J *Religious Edu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 강돈구외 옮김, 『종교교육이론』, 서울:서광사, 1992.

A Study of Buddhistic Education in Secondary level at the 7th Curriculum Revision

Ko, Jin - Ho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Buddhistic Education in the view point of the religious education in secondary level which come in force on the 7th curriculum Revision in Korea. At 2002 years in 7th curriculum Revision, Buddhistic Education as a form of religious education has a complete curriculum structure of national level which has a formal criteria and educational accountability. In the light of curriculum forms of instructional methods about Buddhistic education, there are sharp contrasts between the science of religion approach and dogmatic approach.

As many researchers has mentioned, the science of religion approach in Buddhistic education purpose to be educated a learner who can be only a intellectually understanding to the religion. But in contrast to the science of religion approach, dogmatic approach are purpose to made learner a man of religion who believes only a religion. And so there are many practical attempts which persuade to compromise the conflict of religious and dogmatic approach in the field of Buddhistic education. This article are willing to opportunities which seeks to solve this curriculum issues to has been generated tensions and burdens in Buddhistic Education which take the opportunity in the 7th curriculum revision which are planned to act in Korean Secondary schools at 2002 years

Key words: dogmatic religious education, religion education in the science of religion, religious pluralism, exemplar instruction